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3호

I 「프리지어」 새로운 유통·방식 적용,
일본 시장 시범 수출

II 국산 감 페루 수출 길 열려

III 미국 수출 호접란 재배 온실 추가 승인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3호 2020. 4. 24(금)

‘20.3.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2.9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2.7% 329백만불	  6.6% 1,415백만불	  8.4% 545백만불
+ 인삼류, 김치, 닭고기, 배 -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 라면, 음료, 쌀가공식품 - 궤련, 커피조제품, 맥주	+ 김, 미역, 오징어, 바지락 - 참치, 고등어, 굴, 넙치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1.8))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332백만불(23.8%)	 굴(69.0%), 라면(5.1%)  맥주(42%), 딸기(△18%)
  EU 151백만불(9.1%)	 김치(10%), 음료(4%)  김(△18%), 배(△14%)
  홍콩 102백만불(4.1%)	 김치(10%), 음료(4%)  김(△18%), 배(△14%)
  ASEAN 463백만불(3.0%)	 김치(10%), 음료(4%)  김(△18%), 배(△14%)
 라면(54%), 김치(3%)  궤련(△19%), 참치(△10%)  라면(46%), 인삼류(21%)  김(△25%), 조제분유(△1%)	일본  480백만불(△5.0%) 중국  341백만불(△8.3%)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3. 31



“ 인삼류 ”

◇ 면역력 관심 확대로 온라인몰 중심 판매 확대

52,314천불(5.9%)

▶ 주요 수출국 : 중국(18,990천불, 21.2% ↑), 홍콩(8,992, △9.6), 일본(8,572, 18.1 ↑)
베트남(4,385, 12.2 ↑), 미국(4,268, △6.8),

“ 곡류조제품 ”

◇ 쌀 대체제로 비축 가능한 곡물 관련 제품 소비 증가



▶ 주요 수출국 : 미국(7,842천불, 39.8% ↑), 중국(4,574, 82.6 ↑), 호주(1,637, △10.7)
필리핀(1,153, 20.1 ↑), 대만(1,007, 113.2 ↑), 홍콩(886, 23.1 ↑)

20,321천불(28.8%)



“ 고추장 ”

◇ 외식 자제로 인하여 가정 내 조리 증가, 가정용 수출 증가

10,751천불(13.6%)

▶ 주요 수출국 : 미국(2,863천불, 2.6% ↑), 중국(1,949, 29.6 ↑), 일본(1,004, △7.3)
필리핀(695, 47.6 ↑), 베트남(421, △16.9), 영국(411, 52.5 ↑)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프리지어」 새로운 유통·방식 적용, 일본 시장 시범 수출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침체 돼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프리지어 6,400본을 일본에 시범 수출했다.

수출 품종은 충남 청양 화훼 수출 작목반에서 생산한 프리지어로, 최근 출하가 늘고 있는 노란색 꽃 '솔레이'다. 새로운 유통 규격을 적용해 프리지어 잎을 제거하고 꽃대 중 윗부분만 수확해 포장했으며, 꽃대 길이를 80cm에서 60cm로 약 20cm 줄였다. 잎이 붙어 있는 채로 수확할 경우 땅 속 종구(씨알)가 죽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고 포장 작업도 번거로운 기존 수출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잎이 없고 꽃대 길이가 기존 수출용보다 짧아짐에 따라 포장비와 항공 물류비가 30~5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일본 큐슈 지역 경매인에게 공급한 프리지어는 기존 방식과 품질 비교, 선호도, 신선도, 가격 등 시장성을 평가받고, 이후 평가에서 나온 개선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장기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0품목(매년 6품목)을 발굴할 예정이며, 프리지어는 2020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됐다.

* 2020년 수출 유망 품목(6)

→ 특수미(향미), 멜론(백자·노을), 사과(아리수), 배(그린시스), 프리지어, 양잠산물

농촌진흥청은 내수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를 위해 개발 기술을 접목한 품목 시범 수출과 시장성 평가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이와 연계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잎 부착된 꽃대(왼쪽), 잎 제거한 꽃대(오른쪽)

포장 중인 수출용 프리지어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국산 감 페루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3.23일자로 국산 감을 페루로 수출할 수 있는 검역요건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 검역 요령(검역 본부 고시)'을 제정·발효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월 국산 감 페루 수출 검역 요건에 대해 합의하였고, 그동안 수출입식물검역 관련 규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페루도 '20.2월 수입 요건을 제정·발효하였다. 국산 감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검역 본부 지역 본부·사무소에 선과장과 수출과수원 등록하고 병해충 예찰·방제, 벼초파리 사멸을 위한 저온 처리, 페루검역관 현지 조사 실시 등의 절차를 이행 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 호접란 재배 온실 추가 승인

검역본부는 '17.10월에 호접란을 화분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에 수출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 협상을 타결하여 화훼농가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호접란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2중 출입문 및 환기구 0.6mm 망 설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모래, 흙, 잡초 등이 없도록 하고 벤치에는 동판을 설치하는 등 온실 요건을 갖추면 된다. 검역본부는 '18년부터 2년에 걸쳐 4개의 재배 온실(태안 1, 동두천 1, 울산 1, 음성 1)을 승인한 바 있고 그 결과 수출실적이 '18년에는 700 여주에 불과하던 것이 '19년에는 78,000 여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앞으로도 수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태안에 위치한 승인 재배 온실 인근에 추가로 확보된 재배 온실 1개에 대해서도 금년 3월 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4월에는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총 5개의 재배 온실이 등록·관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